

도, 사업부서 재정운용 성과 평가

120여개 사업 55억원 규모... '미흡' 이하 맨 예산 10% 이상 삭감 등 조치

전북도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조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11일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120여개사업(약 55억원 규모)에 대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사업부서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는 2014년 5월 재정사업평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도에서는 재정의 건전

성, 효율성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 재정정상 대상사업(총사업비 5억원이 상 투자사업, 5천만원이상 행사성 사업)보다 범위를 넓혀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2천만원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부서 자체평가, 민간평가, 서면평가, 면접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부서평가는 사업에 대한 계획, 관리 성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해 우수 이상 사업비율

을 20%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을 10%이상 의무화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을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 평가단 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개 분야 6명으로 구성해 평가지표별 근거자료에 의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현장확인 평

가를 실시해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평가에 있어 타시도와 차별화 전략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및 공감 확산을 위해 평가단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를 벗어나 외부 재정 전문가와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거쳐 최종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계속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은 사후 보완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평가결과를 통해 세출구조 조정된 재원은 민산하기 핵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8일까지 한·중 IT/CT산업교류회 참여기업 공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지역 IT/CT분야 기업의 중국진출 지원에 나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18일까지 한·중 IT/CT산업교류회 및 비즈니스상담회 참여기업 9개사를 공개 모집한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홍보 비즈니스 연계 등을 지원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바이어 발굴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중·중국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한중 IT/CT산업교류회는 지난 2013년 중국 심양시의 대외인민우호협회 및 무역업교류회 및 비즈니스상담회 참여기업 9개사를 공개 모집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 심양시와 전북지역 기업간 비즈니스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차 교류회는 중국 심양에서 개최하고 오는 9월에는 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다량급수업소 수도계량기 일제점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많은 양의 수도물을 사용하는 다량급수업소의 수도계량기 일제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일제점검 대상은 매일 수도물 사용량이 일반용 300톤, 공업용 2000톤, 대

중탕용 1500톤을 초과한 급수업소이다.

특히 숙박업소, 헬스장, 대중탕, 대형 음식점, 예식장 및 정례식장 등 156개 업소를 집중 점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는 직원 6명과 점검원 7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담당구역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 점검과 관리상태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전주시, 3D프로젝션 맵핑 기술 활용 공연 호평

전주를 대표하는 풍남문(보물 제308호)이 최첨단 빛의 옷으로 입고 어두운 밤하늘을 화사한 오색 빛깔로 수놓았다.

지난 10일 밤 9시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를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 첫 공연이 진행. 풍남문의 밤을 화려한 빛으로 밝혔다.

특히 이날 밤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풍남문의 전통 기옥의 구조를 3차원의 입체적인 건축미를 살려 콘텐츠를 제작 건축물에 정확하게 맵핑함으로써 마치 풍남문이 움직이는 듯한 입체적인 효과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간 듯 후백제의 수도였던 옛 전주의 이야기로 출발, 오작교 설화, 덕진연못 아래의 용궁세계, 태조 이성계의 여진행렬 등이 이어졌다. 또, 전통 부채춤부터 현대적 비보잉까지 다양한 맨스가 어우러진 화려한 비주얼쇼와 전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이용한 빛의 향연이 색다르게 펼쳐졌다.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파노라마처럼 선보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외벽을 뜻

하는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으로,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날 공연에 앞서 풍남문로터리, 완산경찰서 사거리, 송악국사거리, 대화철물점 삼거리 등 풍남문 일대 일부구간에 대해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 차원에서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차량통행을 진행했다. 풍남문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도 완산경찰서 맞은편(임시정류장)으로 우회 운행해 운영토록 했다.

시는 이러한 공연을 3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안전 및 프로그램 콘텐츠 안정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오는 7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밤 9시에 본 공연을 선보일 방침이다.

김병수 시 전통문화과장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풍남문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미디어파사드 공연이주를 대표하는 명품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잼버리 새만금 유치 아프리카 가나 방문 지난 10일(현지시간) 2023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아프리카 38개국 300여 명이 참가하는 가나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 가 열리는 행사장을 방문해 2023 세계 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는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4주간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내 주요노선 등 시민들의 보행이 잦은 거리의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과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등이다.

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과 양 구청을 비롯한 옥외광고물협회 등 관계자 12

명 4개조로 구성된 이번 민·관 합동 점검반은 간판과 건물의 접합상태 불량여부와 전기살비 노후 및 외부노출로 인한 감전사고, 간판의 노후, 변형, 이탈 부식 등으로 인한 위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일제점검 후 위험간판에 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취업 미끼 돈만 받아 행진 70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만 받아 행진 7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78)씨와 임모(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홍씨 등은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기자

아파트 베란다서 소주병 던져

술에 취해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주병을 던져 지나던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할 뻔한 60대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1일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소주병을 밖으로 던져 깨트린 A(60)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군산시 내운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주병을 던져 B씨(20·여)를 다치게 할 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군산=문정곤기자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상해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8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식당 종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A씨를 허리띠로 위협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29일에도 전주시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 B(30)씨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배를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기자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정 설치 강이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퍼런스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